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특별시 인천
	배포일자	2022년 3월 24일(목) 총 2매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담 당 자	• 소득작목담당 도학윤 ☎440-6925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과수 화상병 적기 방제로 청정지역 사수!

-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 총력 지도 -

인천광역시는 ‘과수화상병’ 청정지역 인천을 만들기 위해 농가 현장 기술지원 및 방제약제 공급을 통한 사전방제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식물 방역법상 금지병인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에 주로 피해를 주는 세균성 병으로 과수 구제역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병이다.

작년 한해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전국 5개 시도(22시군) 618농가에서 288.9ha의 사과, 배 과수원에 피해를 입었으며, 과수류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꼽힌다.

특히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잎과 줄기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말라죽는 증상이 나타나고 한 그루만 발생해도 전염력이 높아 전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극적인 화상병 방제를 위해 금년부터 기존 2회에서 3회 방제(개화전 1회, 개화기 2회)로 사전 예방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과수농가의 약제방제 부담 경감을 위해 과수 화상병 적용 약제를 농가에 배포하고 적기에 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가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약제 방제와 더불어 교육 이수, 작업도구 소독, 농작업 기록 등 의무사항에 대한 준수가 중요하며, 과수 화상병 의심 증상시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약제방제 현장 사진